

# 신당 파괴력, 야권 빅뱅이나 찻잔속 태풍이나

## 관전 포인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년 총선 공전과 공전 방법 등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보이지 않는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 계파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야권 재편을 노리는 신당 세력과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계기로 호남 정치권은 대규모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여야가 특별한 합의를 도출해내지 않는 한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지역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재 30석에서 26석 안팎

## 선거구 재획정...광주·전남 의석 감축 숫자 관심 새정치 인적쇄신 수위 호남 정치권 지각변동 촉각

으로 줄면서 전체적인 지역구 지형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신당의 출현과 공천 혁신 등으로 호남 정치권의 인적 구성도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추석 명절을 맞아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조명해 봤다.

◇새정치연합의 위기=올해 창당 60주년을 맞았지만 현실은 참혹하다. 심각한 내부 갈등으로 내년 총선 승리는 물론 정권 창출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부정적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파로 촉발된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은 내년 총선 공전 등을 둘러싸고 확대되면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표가 재신임 카드로 당내 분란을 정면 돌파했지만 비주류 진영에서는 주류 진영의 세를 바탕으로 한 '셀프 재신임'이라며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체 야권이 결집해도 아쉬울 판국에 제1야당이 '한 지붕 두 가족'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위기 극복의 핵심은 당내 주류와 비주류의 뿌리 깊은 불신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핵심은 문재인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친노 주류 진영의 진정성 확보라는 지적이다. '그들만의 승리'가 아닌 '모두의 승리'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친노 주류 진영의 시대를 관통하는 '혁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당의 파괴력=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개혁적 국민정당'을, 박준영 전 전남 지사가 '신민당' 창당을 선언했다. 여기에 최근 탈당한 박주선 의원이 신당 창당에 나설 계획이다.

신당 창당 선언이 러시를 이루고 있지만 결국 내년 총선을 앞두고 통합의 수순을

밟아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신당 세력들이 중도 개혁의 정체성을 지향하고 있고, 친노 패권주의 등으로 인한 새정치연합의 정권 창출 비전 상실을 창당의 명분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당이 성공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당장, 정권 창출의 비전을 담보할 수 있는 '인재' 확보가 관건이다. 대선주자 급의 정치적 중립감을 가진 인사들과 개혁성을 갖춘 현역 국회의원들의 합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당 진영에서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내년 총선 공전을 둘러싸고 새정치연합의 내분이 격화되면서 비주류 진영 인사들의 신당 참여가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총선 전에 신당이 원내교섭단체(20석)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정치 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신진 인사들의 참여와 혁신의 경쟁력 확보도 필수 조건이다. 새정치연합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인적·정치적 콘텐츠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호남 등 지역적 구도를 뛰어넘고 분열의 프레임

을 극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신당은 정권 창출의 비전 마련에 실패,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 지각변동=내년 총선은 광주·전남 등 호남 정치권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킬 전망이다. 우선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의 결정적 계기가 없는 한 광주·전남 지역 의석은 2석 내외가 줄어들 전망이다.

광주 동구가 인접 선거구로 통합될 전망이다. 북구와 남구 가운데 어느 곳으로 통합될 것인지도 관심사다.

전남 지역도 최소 1개의 지역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새정치연합의 혁신 공전과 인적 쇄신, 신당과의 경쟁 구도, 지역 민심의 변화 요구 등이 맞물리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대폭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물갈이와 함께 새정치연합과 신당의 격전으로 정치 지형의 지각 변동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새누리당의 선전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재보선에서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이 견고했던 지역주의 벽을 허물고 당선된 데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실망감 등이 겹치면서 새누리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만 내세운다면 상당한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년 4·13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내년 총선에서 정권심판론과 정권교체론을 놓고 치열한 혈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정권교체론 먹힐까 야권교체론 먹힐까

### 주요 쟁점

내년 4월 19대 총선은 이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여서 어느 총선보다 여야 간에 치열한 혈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호남에서도 대선에 앞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유권자의 관심이 어느 선거보다 큰 상황이며 따라서 다양한 쟁점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권의 텃밭인 호남을 중심으로 한 신당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야당 사이에서도 새로운 쟁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권심판론=전국 단위의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쟁점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주도적으로 들고 나올 가

### 정권심판론 힘 못 받을 듯 인적쇄신·세대교체 '태풍'

능성이 크다. 이 쟁점은 야당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이지만 그동안의 선거나 현재 박근혜정부의 대국민 지지도를 볼 때는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라 전망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정권교체론=호남에서는 오히려 정권교체론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즉, 새정치연합 후보들은 대선에서 정권 교체에 대해 제1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할 것이 예상되고 다른 야권 성향 신당 후보들은 새정치연합으로는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니 대안 신당을 지지해

야권을 재편해야 대권에 승산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쟁점은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계의 한계를 지적하는 신당 세력들에 의해 '친노계파주의 비판과 참여정부 호남배신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쟁점은 총선 당시 새정치연합의 분열 정도와 문재인 대표 등 새정치연합 소속 예비대선후보들의 지지율, 반대로 새누리당 예비대선후보들의 지지도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와 파괴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분열론=신당 등장으로 적어도 호남에서 야권 후보들 간에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연합 소속 후보들은 신당 후보들을 향해 야권분열론을 꺼내들 것이 확실시된다. 즉 야권의 분열

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선에서 패배하고 그 여파로 대선까지 패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배신자로 낙인찍어야 한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크다. 반면 신당 후보들은 배신의 원인은 친노계파주의에 있고 야권 분열의 씨앗도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친노가 뿌렸다고 역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쇄신론=새정치연합의 경우 경선 전부터 인적쇄신·세대교체 바람이 불 것이 확실시되며 이는 후보 자격심사는 물론 신인가산점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통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기성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에게 인적쇄신론이 먹혀들다면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둔 17대 총선 이후 가장 많은 정치신인이 등장하는 총선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누가 뭐냐

### ■광주 동구

## 박주선 탈당에 새정치 무주공산... 선거구도 위기



박주선 국회의원, 이병훈 이사장, 정영재 대표, 오형근 원장, 박현 전 청와대 국장

광주의 '정치 1번지'라고 불렀던 동구가 인구하향선 기준에 걸려 선거구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현재 분위기로는 인근 북구갑 선거구 또는 남구와 합쳐질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결과에 따라 후보군들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동구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현역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66) 의원이 탈당과 함께 신당 창당을 선언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대 신당 후보 간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내년 동구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 박 의원이 4선에 성공하느냐가

초미의 관심거리다. 이 지역구 3선 의원인 박 의원은 지지기반이 비교적 탄탄하다는 평가다.

현재 이병훈(58)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 이사장과 정영재(54) 광주인권평화재단 대표, 오형근(52) 성형외과 원장, 박현(62) 전 청와대 공보국장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을 지낸 이 이사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박주선 의원에게 패했지만, '와신상담'하며 바다 민심을 얻는데 주력해왔다.

정 대표와 오 원장 등도 지역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내년 총선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 문제가 큰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 4·5면으로 계속

선물같은 추석

# 2015 The Great Battle of Myeongnyang Festival

## 명량대첩축제

불멸의명량! 호국의울돌목!

2015. 10.9 금 ~ 10.11 일 3일간  
울돌목 일원

| 주 최 | 전라남도 해남군 Jindo 진도군

| 주 관 |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애군 한국관광공사

(재)명량대첩기념사업회 061) 286-5283 www.mldc.kr